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 촛대[燭臺] - 일상용 촛대 ②

일상용 촛대에는 여러 가지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문양을 새겨 넣거나 좋은 글귀를 써 넣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성취하려는 옛사람들의 기복적(祈禱的)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불후리 또는 화선(火扇), 광배(光背)라고 불리는 촛대의 뒤쪽 등거울에 박쥐나 나비, 원, 쌍 원, 팔각문, 파초문, 부채꼴 등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장식한 의장 형태가 많다. 좋은 뜻과 함께 균형감이나 비례 등 전체적인 형태미를 고려한 옛사람들의 멋이 한껏 묻어난다.

사진 1, 2는 등거울에 박쥐무늬 파초선(芭蕉扇)을 장식한, 낫쇠로 된 일상용 촛대이다. 둥근 밑받침에 대나무[竹節] 기둥[竿柱]이 서고, 그 위에 초받침과 초꽃이를 꽂았다. 초받침 뒤쪽에는 불빛의 반사와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등거울을 세워 촛대기둥에 연결하였다. 한편, 촛대와 등거울 이음매에는 초 가위를 달아 초 심지를 깨끗하게 갈무리할 수 있게 하였다. 파초선 등거울에는 앞면에 3마리의 박쥐모양을 오려붙여 파초와 더불어 길상(吉祥)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파초는 조선 후기 정조(正祖)임금의 파초도(芭蕉圖)에서처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민중의 삶을 담은 민화(民畵) 속에서는 장수(長壽)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감초(甘蕉)'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다년생(多年生)으로 잎이 넓고 선인(仙人)의 풍취가 있다하여 도교에서는 팔선(八仙)이 지니고 다니는 물건 가운데 하나이다. 겨울에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오고 불에 탄 뒤라도 속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장구(長久)함과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상징이 되었다. 파초선 가운데 부분의 움처럼 솟은 봉우리가 더욱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는 듯하다. 박쥐문 또한 박쥐의 한자어 '편복(蝙蝠)'의 복(蝠)이 복(福)과 소리가 같아서 다복(多福)을 상징한다. 이 촛대의 경우 등거울은 필요에 따라 좌우 회전은 물론 상하 높낮이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사용과 보관의 편의성을 위해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사진1) 유제박쥐문파초형광배부촛대[鑰製蝙蝠文芭蕉形光背附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8.5cm, 높이 79.8cm, //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유제박쥐문파초형광배부촛대[鑰製蝙蝠文芭蕉形光背附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21cm, 높이 69cm, // 한국등잔박물관

사진3) 유제나비형광배부촛대[鑰製胡蝶形光背附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2cm, 높이 40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4) 유제나비형광배부촛대[鑰製胡蝶形光背附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21cm, 높이 68.5cm// 한국등잔박물관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3, 4, 5 역시 놋쇠로 만든 일상용 촛대로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성적 느낌 그대로 규방(閨房)이나 안방처럼 여성의 생활공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역시 둥근 밑받침에 대나무 기둥이 서고, 그 위에 초받침과 초꽃이를 꽂았다. 초받침 뒤쪽에 나비모양의 등거울을 촛대기둥에 연결하였는데, 특히 사진3의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아름다운 문양을 한 날개와 몸통, 머리에 한 쌍의 더듬이, 그리고 두 개의 겹눈까지 세심하게 조각하여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다. 전통사회에서 나비는 보통 부귀, 아름다움, 행운, 행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월 삼짇날 흰나비처럼 하루 중 이 나비를 먼저 보면 그 해에 상복(喪服)을 입는다 하여 흉조(凶兆)의 상징으로 꺼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대개는 길조(吉兆)로 여겨진 것이, 옛 시나 그림 속의 나비가 꽃과 함께 집안의 행복을 나타내는 길상의 뜻으로 애용되어 온 데서도 살필 수 있다. 어쩌면 꽃을 찾는 나비를 아름다운 여성을 찾는 남자에 비유하듯이, 집안에 갇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던 옛 여인들의 간절한 소망, 즉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애둘러 드러낸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기도 한다.

또다른 사진6, 7은 등잔과 촛대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등잔겸용 촛대이다. 두 가지 용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 등구(燈具)로, 만일 촛대로 쓰고자 한다면 등잔을 살짝 들어내고 그 자리에 초를 꽂아 사용하면 된다. 사진8은 그러한 촛대의 사용을 보여주는 일제강점기 풍속도이다. 육각이나 둥근 밑받침 가운데 기둥이 서고, 그 위에 등잔과 초를 꽂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잔받침 뒤 쪽에는 역시 등거울을 촛대기둥에 연결하였다. 사진6에서는 등거울에 못 자국을 감추고 허전하고 밋밋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장식적 요소로서 광두정을 달아 볼록한 입체감을 줌으로써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 이러한 광두정은 가정에서 쓰는 반닫이나 장, 농 등의 전통적 가구장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촛대와 등거울 이음매 사이에는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囍자 문양을 새기고, 초가위를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촛대에 꽃혀있는 등잔에 심지조절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등잔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전기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유제나비형광배부촛대[鑄製蝴蝶形光背附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13.5cm, 높이 45cm// 한국등잔박물관

사진6) 유제등가겸용촛대[鑄製燈架兼用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24cm, 높이 96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7) 유제등가겸용촛대[鑄製燈架兼用燭臺]// 조선시대// 밑지름 23.3cm, 높이 80.7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8) 등(燈) 풍속 - 등가겸용촛대// 일제강점기// 1930년대 경성전기(京城電氣) 등화사료실 자료 중 조선의 등화풍속도(燈火風俗圖)// 전기박물관